

윤리적 관점에서의 인터넷중독에 대한 시론적 연구

김봉섭[†]

요 약

지금까지 인터넷중독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1)인터넷 과다 사용 (2)중독 (3)현실상황 장애의 매커니즘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접근은 인터넷중독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심리적·정서적 접근 방법을 도입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는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었다. 하지만 인터넷중독에 대한 근원적 탐구 즉, 인터넷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접근하는 인간의 가치체계와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윤리적 접근은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인터넷윤리와 관련하여 목적론적 윤리관, 의무론적 윤리관, 덕 윤리관, 책임 윤리관을 제시하였다. 또한, 네가지 윤리관을 적용하여 인터넷중독은 각각의 윤리관에 근거하여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는 행위임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인터넷중독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개입 방안으로 인터넷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금까지 통속적 컴퓨터 윤리학 강좌에서 탈피하여 이론적 컴퓨터 윤리학으로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인터넷중독, 윤리, 인터넷윤리

A Preliminary Study on Internet Addiction in a view point of Ethics

Kim, Bongseob[†]

ABSTRACT

Until now, the study of Internet addiction have focused on (1)Internet overuse (2)addiction (3)the real situation of disability in order. This approach have given a social awareness about Internet addiction as well as have been used as base for introduction of psychological and emotional means to prevent and treat Internet addiction. However, There are very few an ethical approach that is related in human values that what purpose does people use Internet for and how to use Internet. Accordingly, This study provides teleological, deontological, virtue and responsible ethics of Internet addiction. And, this study insist that Internet addiction is a wrongdoing on the basis of four ethical views. Based on these claims, this study stress the needs for Internet ethical education as a program to prevent and treat Internet addiction and se to tufrm popl computer ethics into theoretical computer ethics.

Keywords : Internet addiction, ethics, Internet ethics

[†] 정 회 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역기능대응부장
논문접수: 2013년 07월 04일, 심사완료: 2013년 09월 24일, 게재확정: 2013년 10월 20일

1. 문제제기

(중략)그는 책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땅거미가 질 때부터 동틀 때까지의 밤 시간을 오로지 독서만 하면서 보냈고 새벽부터 어두워질 때까지의 낮 시간에도 독서만 하면서 보냈다. 이처럼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독서에만 열중한 탓으로 결국 그의 뇌는 빈사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마침내는 이성 능력마저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는 자신이 읽는 모든 것 즉, 마법, 싸움, 도전, 부상, 구애, 사랑, 고통 그 밖의 온갖 터무니없는 상념들에 모든 정신을 빼앗겨 버렸다. 그는 상상의 세계에 너무 깊이 빠진 나머지 자신이 읽는 모든 환상적 요소들이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다.(중략)

위는 세르반테스(Miguel de Cervantes Saavedra, 1547~1616)의 소설 <돈 키호테, Don Quixote>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돈 키호테>는 중세 유럽을 배경으로 당시 사회문제였던 기사도를 신랄하게 풍자하기 위해 씌여졌다. 위의 내용은 몰락한 기사 <돈 키호테>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의 원인을 보여주기 위해 서술된 것이다. 그런데 내용중 ‘책’이나 ‘독서’라는 단어를 ‘인터넷’으로 바꾸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상황으로 인식된다. 인터넷중독을 묘사하는 상황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다. 쿠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 1377~1467)가 1440년 경에 금속활자를 발명하였고 세르반테스가 1605년에 <돈 키호테>를 발표하였으니 165년 사이에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세르반테스는 이러한 내용으로 작품을 쓴 것일까? 문학은 현실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세르반테스가 공상과학소설 작가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그 당시 독서중독이라는 현상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후 텔레비전이 등장하여 텔레비전중독(television addiction)¹⁾이라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야기했던 것과 같이 미디어는 이처럼 태생적으로 인간의 감각적인 몰입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1) 텔레비전중독은 일련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최초로 등장했다[1]. 이후 1990년에 최초로 미국 심리학회 심포지엄에서 텔레비전중독/의존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했던 심리학자들이 모여 텔레비전중독에 대한 정의를 내린바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이용이 대중화되면서 인터넷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서 인터넷중독이란 인터넷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의미한다[2]. 대체로 인터넷중독은 여러 문헌들에서 잘못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규칙 및 규범을 위반한 사이버상의 일탈 행위로 규정(예를 들어, [3])하고 있으며 인터넷중독자들은 알코올 중독자나 도박중독자와 비슷한 행동 양식을 보인다고 한다. 일상생활 장애와 인터넷 사용에 대한 집착, 내성, 금단, 일탈 행동과 현실 구분 장애와 같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난다[4]. 실제로 인터넷중독은 우울, 소외감, 고독, 스트레스를 증가([5], [6], [7])시키고 학업적, 직업적, 사회적 손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터넷중독은 심리학, 교육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시각과 관점에서 접근되어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인터넷중독으로 인한 폐해를 찾는 연구에 집중되어왔다. 이와 함께 인터넷중독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사고의 발생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별로 인터넷중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주로 인터넷중독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치료 중심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예방차원에서의 교육²⁾도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인터넷중독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와 대응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중독이 잘못된 인터넷 사용이라는 점에서는 절대적인 동의를 얻고 있으나 인터넷중독은 무엇으로부터 잘못된 행동인가? 인터넷중독은 왜 잘못된 행동인가? 인터넷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왜 올바른 행동인가?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인터

2)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중독 관련 예방 교육의 내용은 주로 인터넷중독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촉구하는 ‘관심 유발과 경고적 교훈 전달’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인터넷중독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알려 주고 대비책을 제시하는 저차원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넷중독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관점 때문인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중독에 대한 윤리적 접근을 시도코자 한다. 특히, 인터넷 이용이 대중화 및 일상화됨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가치와 규범인 인터넷윤리 관점에서 인터넷중독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코자 한다. 인터넷중독 현상을 기존의 일탈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윤리적 관점에서 인터넷중독과 윤리적 시각과의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개인의 성찰과 책임 그리고 올바른 행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코자 하기 위함이다. 윤리적 접근은 윤리적인 기준이나 목표에 비추어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한 자신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지 못했을 때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인터넷중독과 관련한 근원적이고 심층적인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인터넷중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뿐만 아니라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 인터넷중독과 관련한 논쟁

인터넷중독(Internet Addiction)이라는 말은 골드버그(Goldberg)가 1996년에 처음으로 인터넷중독장애라는 용어를 언급하면서 등장했다. 이후 인터넷중독과 관련한 매커니즘은 개인이 (1)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2)중독상태에 빠짐으로써 (3)현실에서의 정상적인 생활에 큰 지장(예를 들어 건강상의 문제, 학교 및 직장생활, 대인관계의 문제 등)을 초래한다는 점에 주목되어 왔다. (1)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의 관심은 주로 인터넷중독의 원인을 발견하려는 데에 집중([8], [9], [10], [11], [12], [13], [14])되었으며, (2)에서는 인터넷중독을 선별하기 위한 방법 예를 들어 인터넷중독 진단 척도 개발 등이 있어 왔다. 마지막으로 (3)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중독으로 인한 폐해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1)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중독은 현실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를 겪고 그 결과 자괴심이 낮고, 우울한

아이들이 사이버공간이 제공하는 특성을 통해 현실을 극복하고 마음의 위안을 받으며 자아를 회복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인터넷중독자들이 충동적인 것을 보면 인터넷중독으로 추후에 결과될 여러 부작용을 생각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재미만을 쫓아 행동하는 경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15]. (2)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중독을 측정하는 척도로 자주 사용하는 Young(1998)이 고안한 인터넷중독 문항들은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우선성(인터넷사용이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됨), 내성(어느 정도 만족감을 얻기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 금단 증상(인터넷 접속을 안할 경우의 불쾌, 불안 등의 증세), 갈등(인터넷으로 인해 대인관계, 학교갈등 등에 문제가 생김)과 관련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15].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척도의 하나인 김동일 등(2008)이 개발한 청소년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척도는 일상생활 장애, 긍정적 기대, 금단,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일탈행동, 내성 등 6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16]. 마지막으로 (3)과 관련해서는 의도하였건 의도하지 않았건 인터넷중독으로 인해 지나치게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혈압의 증가, 두통 및 위장장애 등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기억력 및 집중력 부족, 수면장애, 신경의 예민, 긴장 및 화, 우울의 증가 등 정서 및 정신상의 문제를 겪는다고 한다. 아울러 가족 및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적음으로 인해 생기는 가정 및 대인관계의 문제, 결석하거나 학교에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학업성적의 저하, 그리고 성인의 경우는 부부관계의 악화로 인한 가정문제 뿐만 아니라 결근, 업무소홀 등 직장생활에서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 그 밖에 인터넷중독으로 사회활동의 감소, 재정파탄, 자녀관계 소홀, 그리고 이혼 등 가정의 파멸에 이르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되고 있다([9], [17], [15] 재인용). 이중에서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은 인터넷중독의 원인을 밝히는 것과 인터넷중독에 따른 폐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왔다.

이러한 접근은 인터넷중독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심리적·정서적 접근 방법을 도입하

는 근거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었다. 인터넷중독자들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인터넷중독 위험관련 인식교육이나 인터넷 과다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용조절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인터넷중독 예방교육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추구하는 ‘관심유발과 경고적 교훈 전달’ 위주의 저차원적 내용³⁾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인터넷중독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알려주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하면서 실습을 해보도록 교육하는 것으로 단기적인 효과를 보일 수는 있으나 근원적인 처방이 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인터넷중독에 대해 기계론적 접근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인터넷중독을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론적 관계에서 단순히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가 인터넷의 특성과 부합하여 증폭된 상황이 인터넷중독이며, 인터넷중독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파생한다는 선형적인 접근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중독 현상과 문제 상황에 대한 가치 판단과 기존의 관행에 대해서 검토하고, 왜 그 행위가 도덕적인 것이고 왜 저 행위는 비도덕적인 것인가의 이유를 계속해서 묻고 또 물어서 파고 들어가는 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 인터넷중독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였는지,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존엄 및 책임과 인터넷중독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등과 같은 내용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터넷중독의 근본적인 속성을 파악하고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보다 근원적인 대책마련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좋은 이론만큼 실용적인 것은 없기 때문이다.

3. 인터넷윤리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

인터넷중독에 대한 윤리적 접근에 앞서 먼저 윤리의 개념을 살펴보면 윤리(倫理)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의미한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도리, 도덕 규범의 총체로서 윤리가 있기에 수많은 갈등과 폭력의 상황에서 인간들은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다. 윤리가 인간의 한 사회의 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하는 동안 발생하는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한 행위적 처방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사회 변화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되고 정보의 가치가 중요시되는 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기존의 윤리나 도덕 원리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윤리⁴⁾이다. 여기서 인터넷윤리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인터넷과 관련된 인간의 행동 양식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데 필요한 규범체계를 의미한다[20]. 따라서 인터넷윤리란 서로 공유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남과 같이 살아가는 암묵적인 규칙이며 현대사회를 원활하게 유지시켜주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동시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약속과 같은 것이다[27].

인터넷윤리와 관련한 윤리적 접근방법으로는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나 그중 공통적으로 네가지 접근방식이 제시되고 있다[22]. 첫 번째는 목적론적 윤리관으로서 공리주의적 시각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목적’은 ‘행위에 대한 결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행위의 결과가 목적에 근거하여 만족하면 옳은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옳지 못한 것이다. 공리주의 철학자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야기한 양적 공리주의자인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이 대표적이며 이후 심리학적 접근을 한 제임스

3) 바이넘(Bynum, 1992)에 따르면 대학 교육에서의 정보윤리 교과목 성격을 3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의 인터넷중독과 관련한 예방교육은 첫 번째 단계인 ‘통속적 컴퓨터 윤리학 강좌’(pop computer ethics)이다. 이보다 고차원적인 두 번째 단계는 ‘준 컴퓨터 윤리학 강좌’(para computer ethics)이며 세 번째 단계는 ‘이론적 컴퓨터 윤리학’(theoretical computer ethics)으로 가장 완성된 형태의 강좌이다[18].

4) 현재 학계에서는 인터넷윤리와 관련된 개념으로 정보윤리, 정보통신윤리, 사이버윤리, 컴퓨터윤리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이는 국내외의 학자들 간에 인터넷윤리의 개념 정의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19]. 본 고에서는 위에 언급된 여러 용어들이 사실상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되어 ‘인터넷윤리(Internet Ethic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밀(James Mill, 1773~1836)과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은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질적으로 높은 쾌락과 낮은 쾌락을 구분한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이 있다.

두 번째는 의무론적 윤리관으로 절대적 법칙에 맞도록 살게 만드는 인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자율적 의무감으로 인해서 인간의 행동이 이루어졌다면 그 행위는 도덕적으로 가치 있다고 말한다. 이런 의무감을 논하는 윤리를 의무론적 윤리라고 한다. 목적론적 윤리관에서는 옳은 것보다는 좋은 것에 우선권을 부여했다면 의무론적 윤리에서는 옳은 것이 좋은 것에 우선한다. 이러한 의무론적 윤리는 외적인 결과보다는 행동 특성 그 자체에 강조점을 둔다. 즉, 행동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은 행위가 산출하는 결과들과 무관하며 그 자체로서 옳거나 그르다는 의미이다. 의무론은 절대적인 도덕관과 선의지를 중요시한다.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보편적 의무는 복잡한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에게 순수하게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제시해준다. 의무론적 접근에서 실생활 적용의 문제는 2차적인 문제이다. 선의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절대 옳음에 대한 존중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는 윤리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세 번째는 덕 윤리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 윤리의 전형이다. 인간은 늘 어떤 공동체 속에 살고 있고,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덕이며, 이 덕들로 이루어진 체계가 곧 윤리였기 때문이다. 현대의 덕 윤리는 도덕적 법칙과 도덕적 의무만 강조한 기존 윤리학의 결점을 보완하려고 했으며 고대의 덕 개념을 오늘날 윤리이론의 요구에 맞추어 적용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덕윤리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384~BC322)의 윤리학 모델에 큰 영향을 받았다. 덕 윤리관의 핵심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전에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윤리의 근본으로 보고자 하는 입장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권유할 만한 행위를 하는 사람의 고정적 성향, 자질 또는 습관 등의 특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연민, 양심, 진실됨과 같은 사람의 도덕적 품성 형성에 일차적인 강조점을 두는 윤리인 것이다[23].

따라서 기존 윤리가 도덕, 법칙, 규칙, 원리에 관심을 가졌다면 덕 윤리는 유덕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하는 내적 특성, 성향, 동기에 주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행위에 주목하기 보다는 행위자 자체에 주목한다. 덕 윤리학 입장에서 볼 때 근대의 원리주의 윤리학은 인간 내면의 도덕성의 근원과 개인의 인성을 무시한 채 도덕적 법칙과 도덕적 의무만 강조했다고 비판한다. 이런 비판에서 이타적인 품성 도야를 목표로 하는 덕윤리가 등장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책임윤리관을 들 수 있다. 요나스(H. Jonas, 1984)는 현대 사회에서 과학 기술의 발달이 인간을 지배함으로써 비인간성과 비윤리성을 결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24]. 책임윤리는 인간의 행위의 동기보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리주의 이론과 더불어 결과주의 윤리학에 속해 있다. 이러한 요나스의 책임윤리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대응하여 인간의 책임을 중심으로 하는 윤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책임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거나 돌보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앞으로 우리가 수행해야 할 미래지향적인 책임을 포괄한다. 또한, 우리의 특정한 행동과 직접 관련된 구체적인 책임보다는 책임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요청된다[25]. 책임윤리는 인터넷윤리와 등장배경에 대한 유사성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술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기가 힘들게 되었지만, 그 결과의 선악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결과가 인류뿐만 아니라 이 우주 환경 모두에게 좋은 모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영란(2006)은 정보사회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역할에서 비롯되는 예상적 책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25].

이러한 윤리적 접근 방식은 심리학자들이 인터넷중독을 포함한 중독 현상에 대해 제시하는 공통사항의 점검을 통해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많은 심리학자들은 모든 종류의 중독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특성들을 여덟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26], [27] 재인용. 첫째, 이런 행동으로 인해 중요한 일들을 게을리 하고 있는가? 둘째, 이런 행동이 당신의 삶에 있어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가? 셋

째, 당신 삶 속의 중요한 사람들이 이런 행동으로 인해 당신에게 실망하거나 화를 내는가? 넷째, 사람들이 당신의 그런 행동을 비난할 때 당신은 당신의 행동을 방어하거나 또는 신경질적이 되는가? 다섯째,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거나 또는 걱정하고 있는가? 여섯째, 이런 행동을 은폐하거나 또는 비밀스럽게 하려는 당신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는가? 일곱째, 이런 행동을 줄이거나 또는 줄이려고 시도하다 실패한 적이 있는가? 여덟째, 당신 스스로에 정직하다면 이런 행동을 유발하는 또 다른 숨겨진 욕구가 있다고 느끼는가? 이러한 여덟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 윤리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윤리적 접근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 것인가?”가 아니라 “왜 그것이 도덕적으로 나쁜가?” “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가” 등 가치판단의 근거와 기준, 원리를 끊임없이 파고드는 방식으로, 구분과 가치판단의 결과 자체보다는 가치판단의 과정과 근거를 탐구하는 자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중독에 대한 인터넷윤리적 접근은 인터넷중독이 갖고 있는 윤리적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4. 인터넷중독에 대한 윤리적 접근

Harvard Mental Health Letter에 따르면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중독에 빠질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27]. 인터넷중독에 대한 가치 판단과 기존의 관행에 대해서 검토하고, 왜 인터넷중독이 비도덕적인가에 대한 이유를 묻고 또 물어서 파고 들어가는 윤리적 무장이 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인터넷중독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중독과 관련한 매커니즘에서 인터넷중독의 가장 큰 선행 요건으로 인터넷 과다 사용이 거론되고 있지만 컴퓨터 사용을 금한다 하더라도 PC방 등 다른 경로로 컴퓨터를 이용할 우려가 있어 무조건 사용시간을 줄이도록 제한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왜 줄여야 하는지 그리고 왜 사용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지 등에 대한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윤리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앞서 제시한 윤리 이론의 적용을 통해 인터넷중독에 대한 윤리적 접근을 시도코자 한다. 첫째, 목적론적 윤리관의 관점에서 인터넷중독의 문제이다. 먼저 목적론적 윤리관의 입장에서 보면, 정보통신 이용과 관련된 어떤 행위를 할 때에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의 환경을 개선하고 유용성을 증진하며 책임있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일, 자신을 포함한 전체로서의 사회 복지와 행복의 증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여 행동하는 일 등을 도덕 원리로 하게 된다[23]. 따라서 일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 과다 사용의 결과가 목적에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인터넷중독은 비윤리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즉,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는 것이 행복하냐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인터넷중독자는 우울, 자존감 결여 등을 겪는 다고 한다. 인간의 근본 목적인 행복추구를 훼손하는 행위가 인터넷중독이라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중독으로 인해 가족 갈등을 초래하는 것을 보면, 다수의 행복추구라는 목적론적 윤리관에 위배되는 행동이 인터넷 과다 사용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인터넷 과다사용의 행위가 과연 사회적 유용성과 바람직한 결과 산출로서의 책임 이행, 사회의 안녕과 질서 및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고려하면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목적론적 윤리관의 관점에서 인터넷중독은 비윤리적 행위의 유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의무론적 윤리관의 관점에서 인터넷중독의 문제이다. 의무론적 윤리관에 따르면 첫째, 스스로 세운 준칙에 따라 행복하되 보편적 법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준칙이어야 하며, 둘째, 나 자신이든 다른 어떤 사람이든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다루도록 행동하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의무론에 의하면, 정보사회에서의 행위의 원리는 그 행위가 가져올 결과와 관계없이 마땅히 도덕 법칙에 의해서만 옳은 것이 된다. 말하자면, 정보사회에서의 어떤 행위도 그것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합의될 수 있는 것인지, 인간의 존엄성과 그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서로 어울려 복된 삶을 살코자 하는 사회 공동체의 본질과 그 행복

의 증진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인지의 관점에서 정당화되는 것이다[23]. 따라서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하겠다는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없음은 당연하기 때문에 첫 번째 정언명령에 위배된다. 또한 인터넷 과다사용의 행위는 나 자신을 목적으로 다루도록 행동하라는 정언명령에 위배되는 행동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터넷중독은 의무론적 윤리관이 주장하는 도덕적 행위를 위반하는 비윤리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셋째, 덕 윤리관의 관점에서 인터넷중독의 문제이다. 덕 윤리는 원칙이 아니라 덕이 윤리에 적합한 도덕적 기초라고 본다. 특히, 정보사회가 바람직한 정보공동체로 형성, 운영되기 위해서는 개개인들이 그에 필요한 인간 존중, 성실, 공정, 타인 배려, 공동선 추구, 절제, 준법 등의 도덕적 덕성을 구유해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사람으로서 그리고 특정한 직분의 사람으로서 훌륭히 행위하는 성격적 성향 또는 덕이 기본적인 관심사다[28].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인터넷 과다 사용의 행위가 자신의 직분에서 훌륭히 행위하는 성격적 성향이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학생의 신분에서는 학업의 증진이, 직장인의 경우는 직무의 충실이라는 행위가 올바른 행위이다. 하지만 인터넷중독자의 대부분이 학업성적 저하, 결근이나 업무소홀 등 직장생활 문제를 겪는다는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터넷중독은 덕 윤리관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비윤리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인터넷중독자의 개인적인 낮은 성취는 윤리적 주체로서의 자기 형성이라는 도덕적 이상에 위배되는 것이며, 타인에 피해를 주는 것은 해악금지 원리에도 명백하게 위배되는 삶인 것이다[29].

넷째, 책임윤리관의 관점에서 인터넷중독의 문제이다. 책임윤리관에서 인간의 행위는 현재의 결과뿐만 아니라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상적 책임을 포괄하는 책임윤리관은 어떤 것에 대해 책임이 있게 되는(being responsible for something) 것 보다 책임있는 사람이 되는(being a responsible person) 것으로 책임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때 내가 맡고 있는 역할이나 과제를 충실해 수행하는 책임있는 사람이 되는 것, 공동체의 한 성원으로서 책임있는 사람이 되는 것, 나아가 한 인

간으로서 책임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25].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인터넷중독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질을 발휘하여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야기할 결과를 예방할 의무에 위반된 행위라 할 수 있다. 즉, 자신의 미래와 꿈을 담보로 현재를 무책임하게 낭비하는 행위로 규정할 수 있어 비윤리적 행위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인터넷중독자들이 충동적인 것을 보면 인터넷중독으로 추후에 결과될 여러 부작용을 생각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재미만을 쫓아 행동하는 경향으로 이해할 수 있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15]. 따라서 인터넷중독은 자신의 미래와 꿈을 포기하고 현재에 탐닉하는 것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행위이기 때문이 비윤리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오늘날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하다. 삶의 양식과 문화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형성되고 발전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한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이것들에 충격을 주고 변화를 일으킨다. 그런데 한 시대의 사회적 가치는 그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동의된 것이라는 가정을 우리는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 그 가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구성원들의 행복 증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사회적, 윤리적 함의에 대한 논의는 과학기술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한 시대의 사회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을 막고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28].

그러나, 윤리에 대한 비판 중의 하나는, 그것이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이념만을 추구함으로써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윤리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윤리나 도덕 원리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원래 당위이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는 늘 하나의

이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상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 우리는 그 이상이 옳다고 여겨지는 한, 비록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30].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본 고에서는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인터넷중독에 대한 윤리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즉, 지금까지 기계론적 또는 선형적 접근으로 인터넷중독 현상을 규명코자 했던 노력에서 벗어나 보다 본질적으로 인터넷중독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또한 그동안 인터넷중독의 결과로서 바라왔던 인터넷 윤리의 관점에서 벗어나 인터넷윤리가 인터넷중독에 선행되어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분석결과 그동안 비행 또는 일탈의 관점에서 논의되었던 것에서 탈피하여 새롭게 도입한 윤리적 접근에 따르면 인터넷중독은 비윤리적 행동의 일환임을 주장하였다. 먼저 인터넷중독은 자신의 행복 추구뿐만 아니라 다수의 행복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의무론적 윤리관에, 보편적 법칙의 위반과 자신을 수단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목적론적 윤리관에 위배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낮은 성취를 초래함은 물론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의 성취에도 부정적인 영향과 해로움을 끼친다는 점[29]에서 덕 윤리관을, 미래의 자신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 측면에서 책임 윤리관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터넷중독은 단순히 일탈이나 비행이 아니라 비윤리적 행동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근본적인 차원에서 인터넷중독의 원인과 결과를 탐구하는 윤리적 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개입방안으로 인터넷윤리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인간의 태도와 윤리에 대한 인식에 미치며 장기적으로 주관적 규범 형성에 도움을 주어 일탈행위의 감소에 기여하기 때문이다[3]. 특히, 지금까지의 인터넷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의 방식을 바이넘(Bynum, 1992)이 제시한 정보윤리교육 성격중 보다 완성된 형태의 ‘이론적 컴퓨터 윤리학’(theoretical computer ethics)으로 전환을 제

안한다. ‘이론적 컴퓨터 윤리학’(theoretical computer ethics)은 구체적인 사례에서 중요한 윤리학적 개념과 학설들을 연역해낼 수 있으며, 보편적 개념과 윤리설들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과 법률의 주요 도구들을 이 문제들에 적용해 이슈 자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윤리적 접근을 토대로 통속적 컴퓨터 윤리학 강좌에서 벗어나 이론적 컴퓨터 윤리학 강좌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인터넷중독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이용자 스스로 근원적인 질문을 해보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윤리적 자기완성 혹은 ‘잘 사는 삶’의 구현이라는 궁극적 삶의 목적[29]에 부합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보면 인터넷중독 성향이 인터넷윤리 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19]. 즉 인터넷중독 성향이 강할수록 인터넷윤리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양자의 관계를 원인(인터넷중독)과 결과(인터넷윤리)의 관계로 보는 시각이다. 하지만 본 고에서는 인터넷중독에 대한 선행요건으로 인터넷윤리 의식을 제안하였다. 비록 시론적인 수준이지만 지금까지의 여러 실증적인 연구들과는 상반되는 가설을 제안한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 가설을 실증적으로 규명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1] Winn, M. (1977). *The plug-in drug*. New York: Viking.
- [2]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 **인터넷중독 자가 진단검사(K-척도)와 예방교육프로그램**.
- [3] 유상미, 김미량 (2010). 실천적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위한 사이버 일탈행위 분석.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제13권** 제5호, 51-70.
- [4] 김미화, 장우민 (2008). **인터넷 게임중독에서 내 아이를 지키는 59가지 방법**. 서울: 평단.
- [5] Brady, K. (1996) *Dropouts ride a net result of computers*. The Buffalo Evening News.

- [6] Murphey, B. (1996). *Computer Addictions entangle student*. The APA Monitor.
- [7] Young, K. S.(1996). Psychology of computer use: XL,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A case that breaks the stereotype. *Psychological Reports*, 79, 899-902.
- [8] Brenner, V.(1997). Update on the internet usage survey. *Paper presented at the 105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Illinois.
- [9] Young, K. S.(1998).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3), .237-244.
- [10] Davis, R. A. (2001).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7, 187-195.
- [11] 어기준 (2000). **청소년 PC중독의 유형과 문제점. 청소년의 PC중독**. 청소년상담원.
- [12] 김혜원 (2001). 청소년들의 인터넷이용현황과 그에 대한 원인분석: 인터넷중독 증세와 음란 행위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제 37회 청소년문제연구세미나, 19-66.
- [13] 이해경 (2002). 청소년들의 음란물, 음란채팅 중독 경험에 있어서 사회심리적 예측변인들의 비교. **청소년학연구**, 9(2), 165-190.
- [14] 이성식·전신현. (2004). 청소년들의 자아중진 동기로서 인터넷공간에의 관여, 정체성형성과 인터넷중독: 정 체 성 이 론 의 적 용. **한국 청소년 연구**, 15(2), 27-56.
- [15] 이성식 (2005). 인터넷중독과 청소년비행의 관계. **정보화정책 제12권 제3호**. 35-47.
- [16] 김동일, 김동민, 고영상, 엄나래 (2008). **청소년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척도 고도화 연구**. 서울:한국정보문화진흥원.
- [17] Schneider, J.P. (2000). *A Qualitative Study of Cybersex Participants*. Sexual Addiction and Compulsivity, 7, 249-78.
- [18] Bynum, T. (1992). *Computer Ethics in the Computer Science Curriculum*, in T. Bynum & W. Maner eds., Teaching Computer Ethics, Southern Connecticut State University New Haven, 12-40
- [19] 김경호, 차은진 (2012). **중학생의 인터넷중독이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윤리의 매개효과 검증**. 보건사회연구, 32(2), 364-401.
- [20]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9). **U시대의 인터넷윤리**. 서울: 이한출판사.
- [21] 권정인, 이성철, 안성진 (2011). **사회현상학 관점에서의 인터넷역기능 분류체계 표준화 연구**.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제14권 제 6호, 1~10.
- [22] 김성식 (2008). **정보통신윤리의 이론적, 철학적 배경**. 한국컴퓨터교육학회지, 제2권 제1호, 31~36.
- [23] 유병열 (2002). **정보사회의 특징과 정보윤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엮음. 과학기술시대의 삶의 양식과 윤리. 서울 : 울력. 191~276.
- [24] H. Jonas(1984). *Das Prinzip Verantwortung. Versuch einer Ethik fur die technologische Zivilisation*. Frankfurt a.M., Suhrkamp. 이진우 옮김(1994). **책임의 원칙: 기술 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경기: 서광사.
- [25] 노영란(2006). **정보윤리에서 책임의 성격과 유형**. 철학, 제87집, 71~97.
- [26] Suler, J. (1996). *Computer and Cyberspace Addiction*, <http://www.rider.edu/users/suler/psyber/cybaddict.html>.
- [27] 현대원 · 김명준(2001). **인터넷 중독의 사회적 중요성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8호, 155-180.
- [28] 이상현(2012). **융합시대의 기술윤리**. 서울: 생각의 나무.
- [29] 추병완(2012). **인터넷중독과 자기 배려: 덕 윤리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Internet and Information Security 제3권 제4호, 44-61.
- [30] 박찬구(2002). **첨단 생명공학 시대의 인간과 윤리**. 과학기술시대의 삶의 양식과 윤리. 서울 : 울력. 81-119.

김 봉 섭



1993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정치학사)

1998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정치학 석사)

2006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언론학 박사)

1995~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역기능대응
부장

관심분야: 뉴미디어, 정보문화, 정보윤리

E-Mail: bada@nia.or.kr